

동서양 문명의 교차 '흘러가는 바람, 불어오는 물결'

전남도립미술관 개관 3주년
3개 섹션 국내외 작가 28명
1부 '현실 너머 이상의 풍경'
2부 '무의식 추상의 세계' 등

전남도립미술관이 개관 3주년을 맞아 특별기념전 '흘러가는 바람, 불어오는 물결'을 오는 7월 7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에서 전남을 대표하는 수목 작품부터 동시대 현대미술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는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여 동서양의 작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미적 탐구 기회를 마련한다. 전시는 3개의 섹션, △1부 '사실과 사의' △2부 '비움과 채움' △3부 '균형과 조화'로 나뉘며 국내외 작가 28명이 참여한다.

1부 '사실과 사의'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현실적으로 재현한 서양의 풍경화와 현실 너머 이상의 세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동양의 풍경화를 통해 두 문명을 하나로 연결하는 '자연과 기억'에 대해 이야기한다. 해외 작가 '데이비드 호크니', '기 바르돈', '앙드레 브라질리에'를 포함해 국내 작가 '유근택', '허달재',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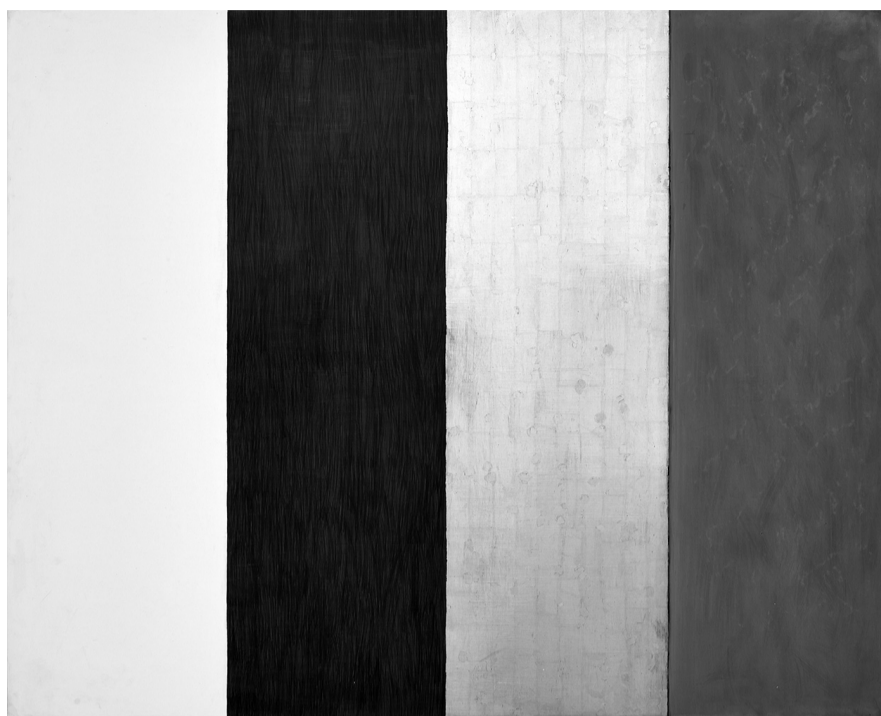
세현' 등의 작품을 소개한다.

동양의 풍경화는 우리를 현실 너머 이상의 세계로 이끈다. 그림을 그리는 작가는 풍경에 직접 들어가 자연과 하나가 되며, 그들에게 자연은 실재하면서도 이상적인 안식처가 된다.

이번 전시에서 동양의 전통적인 산수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동양 사상을 기반으로 한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서양의 산수화는 사실적인 장면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양의 화가들은 자연환경의 세밀한 부분에서 신의 존재와 흔적을 찾아내고자 했다.

2부 '비움과 채움'에서는 여백을 통해 공간 사이의 역동적 균형을 만들어내는 동양의 추상과 기하학적 형태, 색을 조화롭게 배치한 서양의 추상을 미학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우환', '이응노', '이강소' 등의 작품과 '빅토르 바사렐리', '피터 헬리', '메리오버링'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동양의 추상화는 서양의 추상에서 학습된 한 형태로 분류됐으나 동양화가들은 창작의식, 형식적 표현, 미적사고에 있어 동양 사상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들은 여백, 서예, 선(禪) 등 전통적 요소를 작품에 통합하고 개인의 정신



메리오버링 작 무제.

전남도립미술관 제공

과 기법을 결합해 새로운 추상회화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여백의 사용은 공간 사이의 역동적인 균형을 만들어 조화와 리듬감을 조성한다. 이는 동양전통 미학의 '무위(無爲)' 철학을 나타내며, 단순함의 아름다움과 힘으로 표현된다.

서양 추상화의 시작은 화면을 선, 면,

도형 및 색상 간의 관계로 축소하는 것이었으며, 이후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하학적 형태와 색상으로 가득 채운 화면에서 조화를 찾아가는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무의식이 반영된 시각적 공간은 형태의 리듬감과

화려한 색감의 배열을 통해 작가의 감정과 아이디어를 전달한다.

3부 '균형과 조화'에서는 두 문명의 철학과 문화 사이에서 공통점을 발견해 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동서양의 문화와 역사, 전통과 현대, 장르 간 융합과 조화를 보여준다. 특히, 서양 미술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동양의 정신적 요소와 현대 기술을 통합해 현대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백남준'의 작품과 함께 '황인기', '로랑그라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제 3부의 참여작가들은 동서양 문명의 문화가 만나는 곳에서 메시지를 전달한다. 두 세계를 혼합함으로써 작가들은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포용하는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전남도립미술관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수목 작품과 더불어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며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도립미술관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오후 9시까지 연장 개장한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국립광주과학관, 김경택 GIST 교수 초청 '과학스쿨'

17일 상상홀서 올해 두번째

국립광주과학관은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공동으로 오는 17일 오후 7시 본관 상상홀에서 올해 두 번째 과학스쿨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눈 깜짝할 시간보다 훨씬 짧은 빛, 아토초 펄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GIST 물리·광학과 김경택(사진) 교수를 초청해 아토초 펄스의 개념과 이와 관련된 기술발전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경택 교수는 가천대학교에서 물리학과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 후 연구원을 거쳐 현재 GIST 물리·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초고속 광학, 아토초 과학 등을 연구하고 있다.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과학스쿨은 과



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사전예약 후 현장 입장이 가능하다.

행사 참여시 기념품을 추첨 및 선착순으로 제공하며 강연 참여 후기를 SNS에 게재하면 확인을 통해 모바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매 회차 참여시 스탬프 날인을 통해 기념품까지 제공된다.

한수민 국립광주과학관 과학문화실 연구원은 "기존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초고속 현상을 아토초 펄스를 통해 관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토초 펄스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강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과학스쿨 강연은 국립광주과학관 사이버과학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도선인 기자

광주여성가족재단 '에코페미니즘 학교' 개강

19일부터 10월까지 매달 1회

기후위기가 말하는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이를 모색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매달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에코페미니즘 학교'를 연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남대 젠더연구소, 광주여성민우회가 공동 기획하고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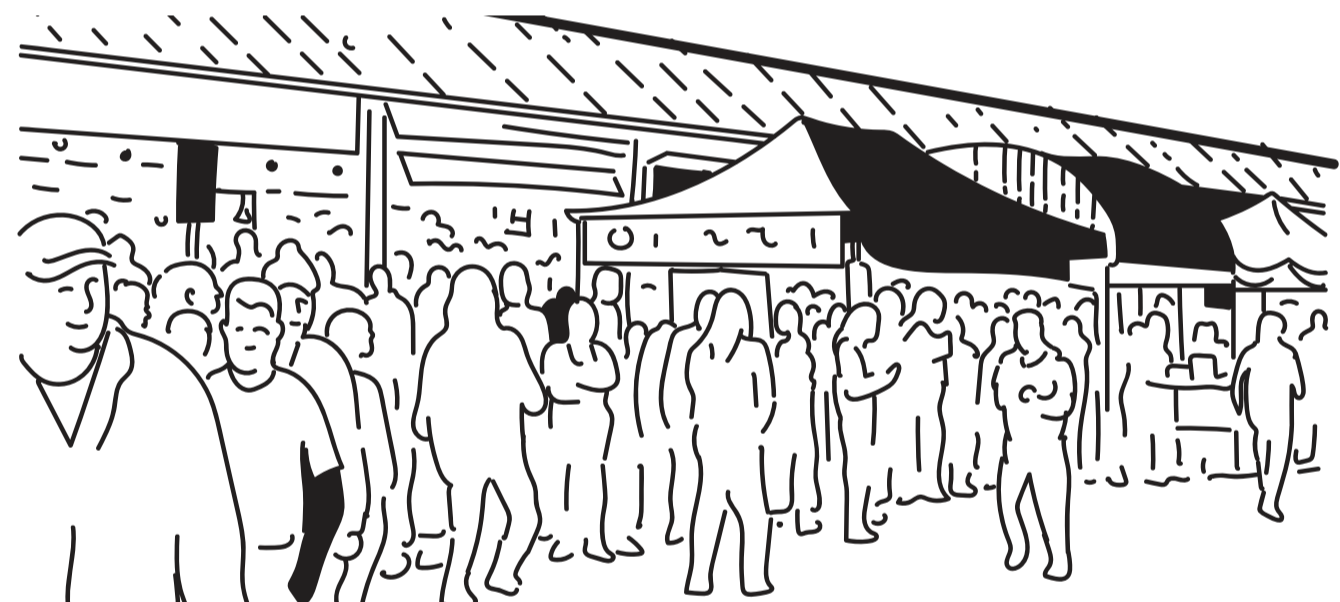
1강은 문화인류학자, 시인, 도시농부 등 15명이 함께 쓴 책 '우리는 지구를 떠나지 않는다'의 북토크를 개최한다.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 김은희 에코페미니즘 연구센터 달과나무 센터장 등 저자 중 4명이 광주를 찾는다.

5월 악어에게 잡혀 먹힐 뻔한 경험을 통해 인간 역시 다른 모든 생명 존재와 마찬가지로 먹이사슬 안에 위치한다는 통찰을 담은 '악어의 눈'의 번역자 김지은 경희대 교수가 참여하는 북토크가 진행된다.

6월 지리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펼치는 '지리산 방랑단'을 초청하고, 7월에는 구제역과 조류독감 매몰지를 기록한 '이름보다 오래된' 도서의 저자 문선희 작가의 북토크를 진행한다.

9월 '세계 끝의 버섯'의 역사 노고은 전남대 문화인류고고학과 교수가 참여하는 북토크를, 10월에는 돌봄 페러다임의 전환을 말하는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는 062)670-0532. 도선인 기자



찾아가는 가맹점 문화장터 '누리랑게' 17일 개최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문화홀서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7일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1차 찾아가는 가맹점 문화장터 '누리랑게'를 올해 첫 개최한다. 어르신·장애인 등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상품 구매할 수 있는 동시에 문화누리카드 이용 방법, 가맹점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행사

는 오는 17일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1층 문화감홀에서 열린다.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문화장터 '누리랑게'에서는 체육용품, 목공예품, 수공예로 만든 가방, 모자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현장에서 문화누리카드도 물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결제금액에 따라 사은품도 증정된다. 문화장터 '누리랑게'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누리 공식 블로그(blog.naver.com/gjcfmunhwanuri)에서 확

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3만원의 지원하는 카드다.

찾아가는 가맹점 '누리랑게'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16회 광주 지역 행정복지센터 신청을 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는 예술지원실 예술누리팀(062-670-5726·7492-3). 도선인 기자

전남문화재단,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모집

18일 사업설명회 개최
선정팀 최대 8000만원

전남문화재단은 '2024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2차 공모'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전남소재 공공공연장과 협약한 공연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창작 및 레퍼토리 공연, 퍼블릭 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지원하

는 이번 공모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유형과 규모는 '육성' 단계 4000만원, '집중' 단계 8000만원 이내이다. '육성' 유형은 창작초연 작품 개발과 퍼블릭 프로그램 운영을 필수로 하며, '집중' 유형은 창작초연 작품 개발, 레퍼토리 공연, 퍼블릭 프로그램을 필수 수행해야 한다.

지원 단체와 공연장의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오는 18일 오후 3시부터 전남개발공사 10층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방향 설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전문가 강연, 상주단체 육성 사례 공유, 공모접수 및 사업 운영 관련 행정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jncf.or.kr) 사업공모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가 있을 경우 재단 문예창작진흥팀(061-280-5824)으로 연락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